

선수 발열에 훈련 중단... 챔스필드도 '코로나19 비상'



24일 KIA 타이거즈에 발열 증상이 나오면서 훈련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KIA 선수단이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흥백전이 끝난 뒤 미팅을 하는 모습.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훈련 전 체온 측정서 37.4도 미열 선수 나오자 선제 대응 예정된 흥백전 취소... 검사 결과 나올때 까지 선수 자가 격리

KIA 타이거즈에 발열 증상이 나오면서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 23일 흥백전을 치른 KIA는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며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었다. 훈련은 오후 1시에 예정대로 시작됐지만 제한 시간도 안 돼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철수했고, 그라운드 정비 작업이 진행됐다. 훈련 전 체온 측정에서 37.4도 미열증상을 보인 선수를 확인, 구단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발열 기준 온도는 37.5도다. 미열 증세를 보인 선수는 코로나 기준 온도를 넘지 않았

기에 정상적으로 훈련 입장을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구단이 KBO 통합 매뉴얼 선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전면 중단시켰다. KBO는 최근 예방의학 전문가(전병을 전 질병관리본부장)가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유증상자가 나오면 KBO에 보고하고, 유증상자는 선별 진료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촉 선수단과 관계자는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되어있다.

유증상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택대기는 즉시 해제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14일간 접촉자 자가격리가 이뤄진다. 자가 격리 접촉자 범위는 파견된 정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KBO의 통합 매뉴얼에 따라 미열 증세를 보인 KIA 선수는 바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선수는 선별 진료소 이동 전 체온 재측정에서는 37.2도를 기록했다. 함께 훈련을 했던 선수와 관계자들에게는 자택대기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미열 환자가 나오면서 25일로 예정됐던 KIA의 흥백전은 취소됐다. KIA는 미열 증세를 보인 선수의 검사 결과를 따라 향후 선수단 스케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개막 다음달 20일 이후로 연기

타 구단과 연습경기 생중계

프로야구 개막이 4월 20일 이후로 연기됐다. 4월 7일 이후에는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가 검토된다. KBO가 2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0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4월 20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현재 예정된 학교 개학일(4월 6일) 이후 코로나19의 사회적 상황을 지켜본 뒤,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타 구단과 연습경기가 진행되면 야구팬들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 TV 생중계도 편성할 예정이다. 단, 당일 원정으로 해 선수단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무관중 경기로 치를 계획이다. 연습경

기 기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선수가 발생하면 2주간 연습경기는 중단된다. 우선 KBO와 10개 구단은 4월 5일까지 정부가 정한 강화 기간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개막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KBO의 무위위원회 신설도 결정했다. 의무위원회는 KBO 리그 관계자 간 야구 의학 정보 공유 및 선진화를 통해 리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의무위원회는 선수들의 부상 치료 및 예방, 율해 처음 도입되는 부상자명단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학범호, 올림픽 연기론에 '대략난감'



내년 개최시 '23세 이하 나이 규정' 선수 11명 출전 여부 불투명 김학범 감독 계약 연장·팀 구성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2020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일한 연령 제한 종목인 남자 축구도 선수 선발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올림픽 연기론'이 무리익으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은 남자 축구다. 올림픽 남자축구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3세 이하(U-23) 선수들만 참가하고 있다. 다만 24세 이상 선수는 3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는 '와일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3명이 출전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달리 올림픽은 와일드카드를 포함해 18명의 선수만 나설 수 있어 사령탑의 입장에서 선수 선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수들은 '연령 제한' 때문에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면 참가 기회를 사실상 놓치게 된다. 나이가 넘어서면 선발이 더 어려운 와일드카드에 도전해야만 한다. 특히나 병역 의무가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 '올림픽 연기'는 더 안타깝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올해 1월 태국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역대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도쿄행 본선 티켓을 품에 안았다.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었다. 이번 AFC 챔피언십에 나선 U-23 '태극전사' 23명 가운데 11명이 출전 자격의 마지막인 1997년생이다. 올해 U-23 챔피언십 최우수선수로 뽑힌 원두재(울산)를 필두로 골잡이로 활약한 이동준(부산), 이동경(울산)은 물론 수비에 큰 몫을 해준 강운성(제주), 정태욱(대구), 이유현(전남), 골키퍼 송범근(전북) 등이 1997년생이다. 비록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김학범 감독

이 차출하려고 했던 백승호(다름슈타트)도 1997년생이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은 병역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1997년생 선수'들은 도쿄올림픽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면 출전 기회를 받기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 김학범 감독 역시 1997년생을 주축으로 올해 도쿄올림픽을 대비하며 팀을 만들어왔던 만큼 새로운 팀 구성을 고민해야만 한다. 일부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돼도 올림픽 예선 대회를 치렀던 선수들에 한해 출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예상도 어렵다. 김학범 감독도 계약 기간이 올해 올림픽까지여서 상황에 따라 연장을 해야만 한다. 아직 본선 무대에 나설 태극전사들의 운곽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림픽을 꾸리는 1997년생 선수들은 물론 김학범 감독까지 IOC와 일본 정부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광주 FC, 기동력 강화

코스타리카 공격수 마르코 영입... 위치 선정·침투 패스·결정력 강점

광주FC가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공격수 마르코를 영입하며 K리그1 무대 재도전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광주는 24일 "2020시즌 팀의 공격을 책임질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 우레나(Marcos Urena-30)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12년 차 베테랑 공격수인 마르코는 코스타리카(피파랭킹 46위) 국가대표로 뛰어난 드리블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 위치선정·침투 패스·결정력 등도 강점으로 꼽힌다. 2008년 코스타리카 1부 알라후엘렌세에서 프로에 데뷔한 마르코는 이듬해 국가대표로 발탁돼 국제무대를 누볐다. 마르코는 2014 코파센트로아메리카나(우승), 2014 브라질 월드컵(8강), 2016 코파아메리카, 2017 골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 등에서 67경기에 나와 15골을 기록했다. 또 FK쿠반크라스노다르(러시아 1부), FC미틸란드와 FC브렌비(덴마크 1부)를 통해 유럽 리그와 유로파리그를 경험했으며, 미국 1부리그인 메이저 리그사커(SJ 어스퀘이크스, 로스앤젤레스FC)에서 뛰기도 했다. 최근엔 데뷔 팀인 알라후엘렌세로 복귀, 2019-2020시즌에 31경기 12골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감각을 과시했다. 박진섭 감독은 "마르코는 득점력뿐 아니라 왕성한 움직임과 기술, 넓은 시야로 동료에게 양질의 패



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다. 펠리페와의 호흡이 기대된다"며 "선수단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K리그1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리그 데뷔를 앞둔 마르코는 "아시아 무대, K리그 진출은 축구 인생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다"며 "끈끈한 조직력과 '윈팀' 플레이를 구사하는 광주는 나에게 딱 맞는 옷이라 생각한다. K리그에서의 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